

# 완판본 가치 “널리 알렸노라~”

전주완판본문화관, 2017 한글문화큰잔치 기획전시 초청 한글고전소설 목판 등 전시

전주완판본문화관(관장 안준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가 주최하고 한글과 컴퓨터가 주관하는 2017 한글문화큰잔치 ‘마음으로 그려내는 빛, 한글’ 기획전시 초청돼 전주의 우수한 한글문화유산인 완판본의 가치를 널리 알렸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고 함께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공연과 전시, 체험, 부대행사, 기업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완판본문화관은 한글의 탄생부터 미래까지 살필 수 있는 ‘한글의 대중화·한글 목판 인쇄’ 전시에 참여해 안준영 관장이 복원한 훈민정음 언해본, 용비어천가,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삼정전·조웅전·구운몽·열여춘향수절가)의 목판과 서책을 전시했다.

이와 함께 목판 인쇄 문화의 핵심인 각수의 전통관각시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완판본에서 집자해 개발한 폰트 ‘전주완판본체’의 한글 문화원형인 열여춘향수절가를 새기는 전통관각시연과 한글 판본을 직접 찍어보는 목판 인쇄 체험을 통해 한글 기록 유산



전주완판본문화관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열린 2017 한글문화큰잔치 ‘마음으로 그려내는 빛, 한글’ 기획전시 초청돼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의 목판과 서책을 전시했다.

의 역사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안준영 관장은 “한글 원형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행사는 한글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 목판 인쇄문화를 통해 함께 소통하고, 전주 완판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다”고 했다.

## 소설가 문순태, 최명희문학관서

19일 '5·18 소설을 말한다' 특강

한국 문단의 대표 중견 소설가 문순태(광주전남 연구원 이사장) 씨가 전주 시민을 만난다.



(사)혼불문화과 전주 MBC, 혼불기념사업회는 오는 19일 오후 7시 최명희문학관에서 문순태 소설가를 초청해 '5·18 소설을 말한다'를 주제로 작가의 작품세계와 문학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특강을 연다.

전남 담양이 고향인 문씨는 그간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피 흘린 광주 시민의 아픔을 소설로 옮기는 작업을 해왔다. 이들 작품 중 광주민주화운동의 체험적 고통과 역사적 부채를 10년에 걸쳐 집필한 소설 '그들의 새벽'은 소외당하는 다양한 삶과 영혼들을 기록하고 있다.

저서로는 '걸어서 하늘까지', '정소리' 등이 있다. 작가는 소설문학작품상, 이상문학상 특별상, 광주문화예술상 문학상, 요산문학상, 가톨릭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토속적인 향수와 한을 주제로 우직하고 진실한 인간상을 그리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는 문 소설가는 이번 강연에선 그동안의 문학작품 성과를 돌아보고, 5·18 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당시 연인이었던 작가가 광주의 체험을 어떻게 소설적으로 형상화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인간이 그리는 무늬 그것은 우리 사회 자화상

▶ 최은우 개인전, 18일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서

최은우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 '인간이 그리는 무늬'가 오는 18일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린다.

2017전북문화관광재단의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신진예술가 지원)에 선정된 이번 전시는 지난해 첫 개인전에 이어 작가가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 작가로서의 고민을 담았다.

전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드로잉작품과 디지털 페인팅이 주를 이룬다. 최은우 작가는 작년 처음 시도했던 패턴을 이용한 드로잉 작업에 이어 올해는 그 패턴을 확장시키고 보다 정교하고 절제된 이미지들을 작품에 담아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작가는 주변의 인물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개별 인물들의 이야기와 흔적들을 재구성했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형상화된 이미지들은 타인의 이야기로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 이야기이자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습으로도 읽힐 수 있다. 작가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자,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작가는 지난해 '디지털 페인팅'이라는 다소 낯선 장르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엔 새로운 프린팅 기법(글라스 프린팅)을 도입하고 소재와 기법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디지털 페인팅'이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더하고자 노력했다.

계원예술대학교 애니메이션과 졸업한 최은우 작가는 2013년 루치아노 베네통 기획 '이마고 문디', 2015년 제 6회 광주 국제아트페어 Y·artist, 2017년 서울 이마주 갤러리 YWCA+YWCA 초대전 등 각종 단체전에 활발히 참여해 왔다. 2016년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첫 개인전 '고립'전을 가진 바 있다.

/정해은 기자



## 전통 춤, 풍류화폭에 담다



전북도립국악원 (원장 신동원) 무용단은 전통 춤의 정수를 전하는 '풍류화폭에 춤을 담다'를 12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선보인다.

전북도립국악원 목요예술무대 12일 소리문화전당 명인홀서 호남산조·진유림류 등 선배

우리 민속춤의 원형을 보여준다.

'교방굿거리 소고춤'은 교방 굿거리 춤 안에

있는 소고춤을 중심으로 재해석한 작품. 한국 춤의 네 가지 요소인 한·흥·멋·태를 고루 갖춘 춤으로 차별하면서도 끈

끈하고, 섬세하며 애절한 무대가 특징이다. 무형문화재 제97호로 지정된 이매방류 살풀이춤과 그의 승천무를 재해석한 '승천살풀이춤'은 하얀 수건을 맺고 어르고 풀면서 한과 슬픔을 흥으로 승화시키는 이중구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 남도무악의 시나위 가락과 조화를 이루며 정·중·흥의 아름다움을 펼쳐 보일 예정이다.

'진도북춤'은 양손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다듬어질 가락과 엇박가락을 활용한 춤으로 역동적인 춤사위가 흥을 돋운다. 공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무용단의 이현주 수석 단원이 직접 기획하고 연출한 무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 당일현장을 방문하면 1시간 전(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 도서관 문화축전, 13일부터 15일까지 전북교육문화회관서

전북도교육청 소속 교육문화회관과 공공도서관 등 18개관이 함께 마련하는 '제11회 도서관 문화축전'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올해 도서관 문화축전은 "책(讀)! 책(讀)! 마음의 문을 두드려라!"라는 부제로 각 기관에서 총 60여개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독후활동 작품과 도서관과 책의 역사(책! 세상을 바꾸다)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마당'을 비롯해, 참여자들의 독

서육구 총족과 독후활동을 배울 수 있는 '놀이마당'과 독서마당, 평생교육과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마당' 등 야외 부스를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행사 관계자는 "도서관 문화 축전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여러 도서관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우수한 독후활동 등을 통해 도서관의 상생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